**3. 1980년 봄 광주의 상황과 5·17 내란**

**가. 민족민주화성회**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광주·전남 지역은 당시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었다.

당시 광주·전남 지역에서 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역량은 전남대 학생운동에 있었고, 조선대학교 등에서는 학원 민주화 투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10·26 사건과 12·12 사태를 거치면서 전남대 학내에서는 그동안의 반민주 세력 및 반민주적 요소의 청산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그동안 학생들의 관제기구로 전락했던 학도호국단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의 활동 결과, 총학생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에서 박관현(법학과 3년)이 압도적인 지지로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명실공히 학생들의 대표 기구인 총학생회가 학원 민주화 투쟁을 주도해나가게 되면서 전국적인 상황 전개와 맞물려 전남대 학생들은 5월 초를 분기점으로 운동의 초점을 전환시키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구체제 복귀 조짐과 더불어 신군부의 정권 찬탈 음모가 소문으로 전달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학생운동은 학내 민주화 투쟁으로부터 민주화를 위한 정치 투쟁으로 전환시켰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당시 5월 6일의 ‘전남대학교 비상학생총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날 비상학생총회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을 ‘민족민주화 성회’ 기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5월 8일에 열린 ‘민족민주화 성회’에서는 전남대 총학생회와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공동 명의로 제1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학생들은 5월 14일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대학에 휴교령이 내린다면 온몸으로 거부할 것이며, 양심 있는 교수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이 일반 학생들의 정치적 열기는 날로 고양되어 가고 있었다.

이들은 교내 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점차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고, 5월 14일 ‘민족민주화 성회’ 마지막 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예정 하루를 앞당겨 당장 가두로 진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전남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5월 14일 오후부터 가두시위를 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날 오후 2시 총학생회의 지휘 아래 전경대의 저지를 뚫고 교문을 돌파한 전남대생 7천여 명은 오후 3시에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하였다.

이날까지만 하더라도 광주 시민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군부 세력이 어떻게 나올지 겁을 먹고 구경만 하는 자세였다.

이날부터 도청 앞 집회에서 대학생들은, 만약 휴교령이나 휴업령이 내린다면 1차적으로는 오전 10시 학교 교문 앞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12시 정오에 도청 앞 광장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했다.

가두시위는 다음 날인 15일에도 계속되었다.

오전에 전남대에서 ‘제3차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마친 1만여 명의 전남대 학생들과 조선대·광주교대생 1만여 명, 전남대 교수, 청년, 시민 등 수만 명의 인파가 도청 광장에 집결했다.

또 16일에는 광주 일원의 거의 모든 대학의 학생들과 일부 고등학생들까지 합류한 일반 시민 등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민주화 성회가 열렸으며, 밤이 되자 사흘 동안의 민주화성회를 마무리하는 횃불 시위가 열렸다.

안병하 전남도경 국장은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의 요청에 따라 평화로운 시위를 허락했다.

광주시내의 주요 도로를 누비는 이 횃불 시위로, 14일 이후 이루어진 시민·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는 경찰의 협조 아래 장엄하게 마무리되었다.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의 의사는 충분하게 전달했으니 정부 측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17, 18일은 쉬기로 했다.

정부가 계엄 해제와 향후 정치일정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다시 성토대회를 벌이기로 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

신군부가 준비한 참상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 5.18 민주화운동의 발발

## 신군부의 군대 투입

1980년 5월 17일 21시 40분, 임시국무회의가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을 의결하자 신군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 신속히 군대를 투입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가 신군부의 주요한 공격 목표였다. 서울에는 1, 3, 5, 9,1,13공수여단이 배치되었고 광주에는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가 전남대와 조선대 등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오직 '시위진압 훈련에만 몰두해 온 신군부의 정예부대로서 전투장비로 완전무장하고 출동했다.

## 공수부대의 혹독함

공수부대는 유사시 적 후방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적의 비정규전을 대비하는 특수 부대였다. 평시에는 침투작전 및 충정작전에 대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공수부대는 강한 훈련과 체력단련을 통해 육군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부대이다.

공수부대는 낙하훈련과 정기적인 천리행군 등의 혹독한 훈련을 받는 부대이다. 임무의 특수함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의 어려움은 일반 보병부대와 크게 달랐다. 유신정권은 이러한 특수부대를 소요진압을 위한 충정작전의 중요 수행부대로 활용하여 왔으며, 1980년 5월 이런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되어 무력 진압을 시작하였다. 비극은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 전남대 총학생회 지도부의 연락 두절

계엄 확대로 인한 당국의 연행을 일단 피한 전남대총학생회 지도부는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상호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했다. 학생지도부의 상당수는 이미 검거되었으며, 검거되지 않은 지도부와의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불과 수 시간 뒤인 오전 9시경에 일어날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 전남대학교 교문 통제

5:18민주화운동의 최초의 도화선은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18일 아침 도서관에 공부하러 나왔다가 계엄군에게 학교 출입을 제지당했다. ' 휴교령이 내리면 다음날 10시에 교문 앞에 모이자'고 했던 당초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왔던 학생들이 공수부대와 충돌한 것이다.

전남대 정문 앞에는 7공수여단 33대대(대대장 권승만 중령)가 교문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은 휴교령이 내린 사실을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귀가하라고 종용하고 있었다.

## 전남대학교 휴교령에 반발

그러나 학생들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7공수대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100여 명의 학생들이 정문 앞 다리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수가 200~300여 명으로 불어나자 자연스럽게 노래와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공수부대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돌격, 진압을 시작하였다. 특수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의 진압에 맨손인 학생들의 저항은 무기력하였다. 진압봉으로 가차 없이 머리를 때리는 공수부대원들에게 학생들은 부상자 십여 명을 남긴 채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냥 도망치지 않았다. 뒤로 밀려나는 와중에서도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역 광장에 다시 모여들었다. 대오를 정비한 300~400여 명의 학생들은 우선 금남로 도청 앞 광장을 목표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을 지나서 오전 1시쯤 가톨릭센터 앞까지 진출하였다. 이들은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씨 석방하라 ' 휴교령을 철회하라''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 그러나 초기시위대는 아직 소수였으며, 전투경찰의 진압에도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 다닐 정도였다.

## 광주를 강경 진압하라

공수부대는 아직은 광주시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18일 학생시위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2.12 쿠데타의 일원으로서 신군부의 핵심세력인 계엄부사령관인 육군참모차장 황영시는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도록 지시하였다.

## 7공수여단 33대대 진압 시작

7공수여단 33대대는 주둔지 전남대에서 나와 오후 4시경 수창초등학교에 집결하였다. 그때 수창초등학교 부근에서 학생 60여 명이 "계엄해제" 구호를 외치며 공수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오를 정비한 공수부대는 순식간에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과함께 무자비한 강제해산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7공수여단 33대대는 도청방향으로 전진하면서 금남로 및 가톨릭센터, 충장로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시위진압을 실시하였다. 7공수여단 35대대는 조선대를 출발하여 도청 쪽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시위진압을 개시하자마자 시위가담여부와 상관없이 도로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무조건 쫓아가서 곤봉으로 구타하였다. 또한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면 여럿이 몰려들어 무차별로 때리고 짓밟았다. 그리고는 쓰러진 사람들을 질질 끌고 가 트럭에 실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위진압이 아니었다.

오후 5시쯤에는 청산학원 근처에서 치열한 진압작전이 벌어졌다. 공수부대가 진입한 곳은 단 30분도 못 되어 거리가 조용해졌다.

## 전국적에서 일어난 산발적인 시위

이날 계엄군은 전국의 모든 주요 도시에 진주하였다. 사실 학생운동 지도부의 지도력이 마비된 상태에 있기는 광주나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였다.

휴교령이 내릴 경우 학생들의 행동지침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광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지만 대부분 초기진압되고 말았다.

## 광주 시민들이 모인 이유

18일 오후부터 학생시위를 통해 '김대중의 체포와 전두환의 쿠데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 속에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김대중이라는 동향출신 정치인의 핍박과 수난을 자신들과 동일시 해 온 광주시민들은 그의 투옥을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무참하게 좌절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시민들은 시위학생들에 대해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도 이 같은 유혈극에 너무도 겁에 질려 항의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 7공수부대의 행동반경

7공수부대의 행동반경은 금남로 등 시내 중심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도주하는 학생과 청년들을 뒤쫓아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민가에까지 들어가 젊은 남자들을 보이는 대로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두들겨 팬 후옷을 벗기고 포박하여 연행해 갔다.

단지 소수의 학생들만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서로 격려해가며 7공수부대원들의 추격을 피해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동명동, 산수동 일대 시위대 2,000명은 오후 4시 40분경 동명파출소, 지산파출소를 파괴하고 산수동으로 향했다. 시위대는 농장다리를 지나던 경찰 차량을 발견하고 차출된 경찰들을 인질로 잡았다. 이들은 도청 쪽으로 다시 걸어가다 오후 5시경 공수부대(7공수 35대대)가 나타나자 붙잡은 경찰들을 풀어주고 도망쳤다. 공수부대는 산수동, 풍향동 일대 주택을 샅살이 수색하였다. 오후 7시경 계림동 광주고 부근에 수백 명의 청년, 학생들이 나타나 공수부대에 맞섰지만 역부족이긴 마찬가지였다. 밤 8시 15분경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에 학생.시민 약 600여 명이 공수부대와 투석전을 벌였지만 단 10분 만에 해산당하고 말았다.

## 5월 18일의 통금 시간

5월 18일의 시위는 이것이 전부였다. 상무대에 있는 전남북계엄분소는 오후 6시 '계엄공고 제4호'를 발표하여 당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던 통금시간을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밤 1시 20분경에는 계엄군 1개 지대와 경찰 1개 분대씩을 묶어 광주시내 36개 주요 지점에 합동으로 배치시킨 뒤 삼엄한 경계를 폈다.

## 7공수여단의 잔혹함으로 인한 첫 희생자

5월 18일의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의 시위진압 행위는 무자비하고 광폭했다. 그들은 주로 진압봉을 썼지만, 부분적으로는 대검까지 사용했다.

2군사령부의 계엄상황일지\_에 의하면 5월 18일 하루 연행자가 대학생 114명, 전문대생 35명, 고교생 6명, 재수생 66명, 일반시민 184명 등 405명이나 되었다. 이중 68명이 두부외상, 타박상, 자상(대검 사용에 의한 부상) 등을 입었고 12명은 중태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7공수여단 31대대가 진주한 전주 전북대학교에서는 이날 새벽 이세종(20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5.18민주화 운동기간 발생한 첫 사망자이다.

# 5월 19일 상황

## 광주에 11 공수여단을 증파

신군부는 7공수여단이 광주시내에서 시위진압 출동 이전인 5월 18일 오후 2~3시경 11공수 여단을 광주에 증파하기로 결정했다.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5월 18일 점심 직후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소장이 "광주사태가 악화될 조짐이 있어 9특전여단을 증파하기로 결정했다" 고 알려주자 이를 1공수여단으로 교체해 11공수여단을 광주에 증파한 것이다. 정호용 사령관은 11공수여단의 광주 증파 이유가 "7공수여 단의 2개 대대가 소요진압작전을 못하고 고전을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실제 상황과 현지 지휘관의 의사와는 무관했던 결정

그러나 7공수여단의 광주시위진압 출동시간은 그런 결정보다 뒤인 오후 4시 경이었다. 따라서 이날의 11공수여단 병력 증파 결정은 광주 현지의 실제상황이나 현지 지휘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려진 것이다. 5월 18일 오후 3시로 광주 출동명령을 받은 11공수여단은 오후 4시 30분경 61대대가 성남비행장에서 C-123 수송기 5대에 탑승, 광주로 이동하여 오후 6시 30분경 조선대에 도착하였다. 잔여부대인 62, 63대대 병력은 열차 편으로 이동해 다음 날 5월 19일 새벽 1시 50분경 조선대에 도착하였다.

## 일상 속 시민들의 동요

공포와 불안으로 하루를 보낸 다음 날인 19일 광주지역은 대학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는 정상수업을 계속했고, 관공서나 기업체, 공장 등은 대체로 정상근무를 하였지만 일손을 거의 놓은 채 18일의 공수부대 만행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 금남로로 몰려든 시민들

시내 중심가의 상가들은 대부분 철시한 상태였다. 이른 새벽부터 군인과 경찰들이 시내 전지역에 걸쳐서 삼엄한 경비를 서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고, 금남로는 일체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다. 이런 이중에서 시민들은 시내로 나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자며 오전 9시쯤부터 몇 명씩 짝을 지어 금남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 군경과 대치한 광주시민들

오전 10시경 시위군중 200여 명이 충장로파출소에 투석하고, 경계중인 11공수여단 61대대원들을 공격하였다. 오전 10시 30분경 금남로에 모여든 군중이 2,000~3,000명으로 불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군경과 대치하였다.

이들 중에는 이미 학생들은 별로 없었고,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10시 40분부터 경찰과 공수부대는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서기 시작했다.

## 군경의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돌을 던진 시민들

그러나 어제의 잔인한 진압에 분노하고 있던 시민들은 그냥 쫓겨가지 않고 야유를 보내고 돌을 던지며 항의했다. 군경과 시민의 충돌이 시작되자. 장갑차 2대를 앞세우고 군용 트럭 30여 대에 분승하여 광주시내에서 위력시위중이던 62대대와 63대대원들이 공수부대가 도청 앞과 광남로 사거리에 진출하여 시위군중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 무자비 해진 시위 진압

19일 새벽 4시경 모든 이동을 마친 11공수여단 병력 1,140여 명이 모두 투입되어 본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선 것이다. 또 그만큼 희생이 늘었다.

이때부터 또다시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시위진압이 시작되면서 전날보다 더 잔인한 살육전이 전개되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항의하던 할아버지와 아주머니, 도망가던 여학생, 버스기사, 학원에서 공부하던 어린 학원생들 모두가 그들의 진압 대상이었다.

## 시내 전역으로 확대된 시위 진압

공수부대원들은 3~4명이 한 조가 되어 시위현장 주변의 건물이나 집들을 살살이 뒤졌으며, 그안에서 젊은 사람이 발견되면 무작정 두들겨 팬 뒤 연행하였다. 붙잡힌 시민들은 팬티만 남기고 발가벗겨진 채 군 트럭에 실려 갔다. 이러한 폭력은 시내 중심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가지 전역에 걸쳐서 자행되고 있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만행이 백주대로에서 자행된 것이다. 오후 1시 10분까지 401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

## 광주 진압 최초 희생자 김경철

이런 진압으로 광주 진압 최초 희생자가 나왔다. 청각장애인 김경철(23세)은 직장 부근, 제일은행 인근 도로상에서 10시 30분에서 1시사이에 11공수여단 62대대에 붙잡혀 진압봉과 군홧발로 머리와 온몸을 구타당했다. 광주경찰서로 연행된 김경철은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근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상태였다. 김경철은 이날 밤 계엄 당국에 의해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 시위의 중심세력이 대학생에서 시민대중으로

19일 오후로 접어들면서 시위 양상은 수세에서 공세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위의 중심세력도 대학생에서 시민대중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갔다.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행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시민들이 시위대열에 합세하기 시작했다.

## 과격해진 시위와 공수부대의 바둑판식 작전

오후 1시 30분경에 공수부대 병력이 식사를 위해 조선대로 철수하고 경찰 병력이 가톨릭센터 앞을 차단하였다. 시민 4~5천 명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기름통에 불을 붙여 경찰 쪽으로 굴려 보냈다.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되자 시민들은 불붙은 승용차를 공수부대 쪽으로 밀어붙였다.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운 가운데 공수부대는 시내 도로의 요소를 점령하는 바둑판식 작전을 펼쳤다. 계엄군들은 작전지역 내 민가나 상가를 샅샅이 수색하여 청년들을 잡아갔다.

## 부상자 수송을 방해한 계엄군

오후 4시 30분경에는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제11공수여단 61대대 병력과 1천 명의 군중이 대치했다. 청년들이 대치선 50미터 앞까지 다가가 일제히 돌을 던졌다. 계엄군의 장갑차가 돌진하여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시민들을 갈라농았다. 계엄군 병력이 증원되고 시위군중도 3천 명으로 늘어나 치고 빠지는 공방이 계속되었다. 수많은 타박상∙자상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계엄군들은 부상자들을 수송하는 택시 기사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 계엄군의 장갑차에 방화 시도를 한 시민

오후 4시 50분경 계림오거리에서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장갑차 1대가 시위대를 해산시키다 고장으로 멈춰 섰다. 시위대 중 일부가 페인트통, 짚단 등을 이용해 장갑차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위협하자 장갑차에 타고 있던 계엄군 장교가 해치를 열고 나와 M16 소총으로 한 차례 위협사격을 한뒤 도로 바닥을 향해 연발로 사격했다. 이 사격으로 시위대 한 명이 최초로 총상을 입었다.

## 광주 전역에서의 산발적인 시위

이날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양동, 유동, 임동, 시외버스공용터미널, 광주역 등에서 밤늦도록 산발적인 시위가 전개됐다. 5월 20일 아침 서2동 전남 양조장 공터에서 민간인 김안부(34세)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전날 밤에 계엄군의 총격으로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 병원을 채운 부상자들

공수부대원들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이날 낮부터 광주시내 종합병원과개인병원에는 부상자들이 줄지어 입원하기 시작했다. 공수부대원들의 구타에 중상을 당한 채 달아났거나 주위의 도움으로 무자비한 손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정부 그리고 언론통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정부는 광주에서의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각종 보도 매체들도 계엄당국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광주 상황과 관련된 보도를 전혀 못 하고 있었다. 19일 밤, 시위를 마치고 해산한 광주시민들은 공수부대의 만행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일념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대대적인 민중항쟁의 조건이 조성되고 있었다. 그 항쟁은 신군부 스스로 자초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야기한 것이다.

## 군대의 입장

전투교육사령부가 항쟁이 끝난 직후 군의 시각에서 정리한 ‘광주소요 사태 분석-교훈집’ 은 광주시민이 공수부대에 맞서 죽음을 불사한 항쟁을 벌이게 된 원인에 대해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해산보다는 체포 주안으로 협공, 소요진압 중 지역주민이 보는 가운데 폭동군중과 격렬한 충돌 발생, 도피 군중을 추적.체포하는 과정에서 기물파괴, 가족위협에 대하여 시민들의 야만적 감정 폭발" "소요진압 중 발생된 사상자 및 체포자의 처리 지연과 장기간 노상방치로 주민들의 감정을 촉발' 군의 자료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의 초기진압작전은 정당한 진압과 과잉진압이라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다.

한편 이날, 미국의 태평양지구 공군사령관인 휴즈 중장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전술 공군기들은 매우 빠른 시간내에 한국전선으로 출격할 것이며, 어떠한 북한의 공중공격도 격퇴할 능력을 한미 공군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3. 5월 20일 상황

가. 31사단의 반발과 3공수여단의 증파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은 형식상 광주의 31사단에 배속되었지만, 실질적인 통제는 신군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 공수부대들은 31사단과 전교사에 작전 상황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웅 31사단장과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은 18일 저녁까지 시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부로부터 광주 시내에서의 공수부대 만행을 전해 들은 정웅 31사단장은 ‘31사단 작전명령 제3호’를 통해 유혈 진압이 아닌 무혈 진압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군 충정작전지 추가지시’를 통해 광주에서 ‘바둑판식 분할 점령’과 ‘시위대를 조기에 분할, 타격, 체포할 것’, 그리고 ‘소요 군중의 도피 방지책 강구’와 더불어 ‘과감한 타격’을 가하라는 더욱 강력한 시위 진압 명령을 내린다.

또한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19일 오전 6시 30분경, 3공수여단 5개 대대를 또다시 광주에 증파할 준비를 하라고 3공수여단장에게 지시하였다.

7공수여단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기도 전에, 11공수여단의 광주 증파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1공수여단이 광주 시내에 투입된 19일 오전 10시보다 훨씬 이전에 증파를 준비한 것이다.

5월 19일 밤 12시, 청량리역에 도착한 3공수여단은 5월 20일 새벽 1시경 열차를 이용해 서울을 출발하여 아침 7시경 광주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총원은 3,400여 명으로 불어났다.

**나. 항쟁의 징후와 광주역 일원 발포**

전날 밤부터 내리던 비는 20일 오전 9시경 그쳤다.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비를 맞으며 변두리 지역에서부터 시내 중심가로 몰려들고 있었다. 시내에는 여전히 공수부대가 지키고 있고, 시민들은 어제 공수부대 만행으로 보아 오늘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집에 있을 수만은 없었다. 시위대와 공수부대의 접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공수부대는 표면적으로는 전날과 좀 달리 보였다. MI6 소총에 대검을 꽂지도 않았고, 말씨도 공손했다. 술 냄새를 풍기거나 눈이 벌겋게 충혈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20일 오전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별다른 사건 없이 대체로 소강 상태를 이루면서 지나갔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광주시가지는 다시 팽팽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어림잡아도 10만이 넘는 인파가 금남로를 뒤덮었다. 이제는 시장의 상인들까지 장사를 걷어치우고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다. 시내 곳곳에는 그동안 공수부대의 폭력에 의한 참상을 다룬 각종 명의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그 유인물은 의분에 찬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관제 언론과 정부의 거짓된 선무방송을 이겨내기 위해 발행한 것이었다.

오후 3시가 지나면서 금남로의 시위대는 수만 명으로 불어났으며,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드디어 경찰의 최루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금남로의 시위 군중과 경찰 사이에 공방전이 시작되었고, 시민들은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몰려드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또다시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폭력과 시민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났으며, 도망치거나 방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결사적이었다. 도청 앞 광장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에는 시민들의 대열이 밀물처럼 밀어닥쳤다.

공수부대의 만행에 흥분한 택시 기사까지 시민들의 투쟁 대열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200여 대의 자동차가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켠 채 무등경기장을 출발하여 저녁 7시쯤 금남로에 들이닥쳤다. 이 엄청난 자동차 시위 행렬은 일시적 소강 상태에 빠져 있던 시위 군중들의 전의에 다시 새로운 불을 질렀다. 차량 행렬이 금남로에 이르자, 저지선 앞에서 대치 중이던 군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했다.

이날 저녁 도청 앞 금남로는 시위대와 계엄군의 공방전으로 지옥이 되었다. 공수부대원들은 개머리판으로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부수며 전진하였고, 닥치는 대로 운전기사들을 끌어내 두들겨 댔다. 그러나 잠시 물러나던 시위대는 공용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온 또 다른 시위대와 합류하여 계엄군을 압박하였고, 계엄군 저지선은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앞까지 후퇴하였다.

저녁 7시 30분 무렵, 금남로에는 전체적인 형세로 보아 시위대가 계엄군을 포위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도청 앞 분수대를 중심으로 시위대와 계엄군 사이에 혈전이 계속되었다.

이날 밤 광주 지역의 시위대들은 시간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았으며, 밤이 깊어 갈수록 쌍방의 공방전은 고조되었다.

이윽고 밤 9시 40분에는 MBC 방송국이 불타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수부대의 만행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정부의 발표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태도에 극도로 흥분한 시민들이 방송국에 불을 지른 것이다.

KBS 역시 다음 날 새벽 불타올랐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의 공격도 거세졌다. 이 와중에 상무관 앞에서 시위대 버스가 방어선을 펼치고 있었던 경찰을 들이받아 경찰 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시내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대가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다소 경험을 가진 몇몇 지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공수부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내에서 시민들에게 포위되어 고립되었다. 1공수여단과 7공수여단 병력은 도청 앞으로 집결하고, 3공수여단은 광주역 일대에 집결했다. 광주역으로 향하는 방사형 도로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시위대의 공격이 이어졌다.

밤 1시경 광주역에서 총성이 울렸다. 3공수여단과 시위대의 공방전이 격렬해지고, 시위대가 차량을 앞세워 군의 저지선을 돌파하려 하자 일제히 발포를 하였고, 시위대의 맨 앞의 시민들이 총격에 의해 쓰러졌다.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한 최초의 집단적인 발포였다. 이미 3공수여단장의 지시에 의해 밤 9시 50분경부터 3공수여단 전 대대에 실탄이 전달되었고, 이후 광주역 인근에서 총성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이런 과정에 신안동 사거리에서는 시위대가 화물트럭으로 돌진하다 전복되면서 3공수대원 1명이 사망하였다. 밤 1시 20분, 2군사령부는 긴급하게 발포 금지, 실탄 통제 지시를 내렸지만 발포는 3공수여단이 전남대로 퇴각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날 저녁 및 다음 날 새벽까지 광주역 인근 시위 현장에서 7명의 민간인이 계엄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광주시내의 항쟁이 확대·발전됨에 따라 신군부는 항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서둘러 막으려 했다. 호남고속도로로 통하는 교통과 통신을 차단하는 등 광주를 고립시키는 조치를 잇달아 취하기 시작했다.

**4. 5월 21일 상황**

**가. 가자, 도청으로!**

21일 새벽이 되어도 시민들의 항쟁은 그칠 줄 몰랐다. 새벽 1시에 시민들은 세무서로 몰려가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질렀다.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위하여 쓰라는 세금이 자신들을 죽이고 두들겨 팬 군대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시민들은 기타 공공건물을 오히려 보호하는 분위기였으므로 방송국과 세무서 방화는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초기에 파출소를 공격했던 것과는 그 이유가 질적으로 달랐다.

항쟁 나흘째로 접어든 21일 아침, 지난 새벽 광주역에서 사망한 시민의 시체 2구가 시민들의 손에 들려왔다. 시민들은 손수레에 시체를 싣고 대형 태극기로 덮어 천천히 시내로 나아갔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위대의 방송 차량과 시신을 실은 리어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전 10시 10분경에는 벌써 도청 광장에 있던 공수부대에 실탄이 지급되는 장면이 동아일보 김영택 기자 눈에 포착되었다.

이미 전날 밤 3공수여단 작전 지역인 광주역에서는 실탄 분배와 발포가 있었고, 전남도청 일대에서도 11공수여단 일부 병력에게 실탄이 분배되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결코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다.

**나. 도청 앞 집단 발포**

오후 1시 조금 못 미쳐 장갑차에 장착된 기관총 캘리버 50이 시위대를 향하자, 12시까지 공수부대 철수를 요구하던 시위대 쪽에서 화염병 하나가 날아와 장갑차를 맞췄다.

계엄군은 엉겁결에 최루탄을 난사하며 무질서하게 뒤로 흩어졌고, 이 와중에 계엄군 한 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측 장갑차에 깔려 사망했다.

시위대 장갑차 1대가 계엄군 진영을 돌파하여 분수대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고, 버스 2대가 뒤따라 도청 분수대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다.

일제사격은 1분이 넘게 계속되었다. 이어서 오후 1시 정각부터 일제히 요란한 총성이 터져 나왔다. 공수부대원들이 ‘횡대 무릎쏴’ 자세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집단 발포를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사격 상황을 통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세였다. 사격은 메가폰으로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약 10분간 몇 차례 계속되었다.

금남로는 총탄에 쓰러진 시민들만 도로 위에 남겨둔 채 순식간에 텅 비었다. 이로써 광주시민들이 간절하게 품고 있던 소박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금남로는 피바다를 이루었다. 시민들로 가득 찼던 거리는 적막에 빠졌고, 죽은 이들의 피와 부상자들의 신음만이 금남로를 울리고 있을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태 앞에 시민들은 넋을 잃고 분노와 공포감으로 치를 떨었다. 이후 전일빌딩, 상무관, 도청, 수협 전남도지부 건물 옥상에 저격병들이 배치돼 시위대열의 선두에 있는 시민들을 조준하여 사격했다.

이날 도청 앞 집단 발포로 현재까지 41명이 총격으로 사망하였는데, 중고생 등 10대가 12명에 달한다. 그 외 수백 명이 총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전남대에 주둔 중인 3공수여단도 다시 발포를 하였다. 오전 10시경 전남대 정문에 4만 명, 후문에 1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정문 쪽 시위대 수백 명이 갑자기 정문을 돌파하여 전남대 안으로 밀고 들어가자 3공수여단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시위대를 몰아붙여 600미터 떨어진 신안굴다리까지 총을 쏘며 추격했다.

시위대와 계엄군은 이 구간에서 여러 차례 공방을 벌였다. 오후 1시 30분경에는 전남대 인근 평화시장 입구 집 앞에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던 임산부가 계엄군이 발사한 총탄에 머리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고등학생 이성귀는 이날 계엄군의 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해 전남대 이학부 뒷산에 암매장되었다.

그렇다면 대낮에 최소 41명이 총격을 당하여 사망하고 수백 명이 총을 맞아 부상한 이날 도청 앞 집단 발포를 명령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발포 명령 책임자를 밝히는 일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그간 신군부가 구체적인 핵심 증거를 5공화국 8년 동안 대부분 없애버린 탓에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의 정리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광주특위 청문회 이래 공수부대 지휘관들은

시위대가 먼저 발포했다.

실탄은 31사단 병력이 제공한 것이다.

상부로부터 발포 명령은 없었으며, 대대장급 이상의 현장 지휘관들도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누군가가 먼저 발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조작된 진술이다. 먼저 20일은 물론 21일 공수부대 전 지휘관들로부터 발포 요청이 빗발쳤다. 실제 발포를 실행한 상황에서도 이미 20일 23시 20분 상급부대(2군사령부)에서는 ‘발포 금지, 실탄 통제’ 지시를 내렸고, 21일 오후 이후 ‘자위권 발동’까지 군의 공식 지휘계통상의 다른 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순적인 상황이면서 엄격하고 중차대한 군규 위반이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발포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대간첩 작전상의 조치, ‘진돗개 하나’가 발동되었다.

이어서 ‘자위권’ 주장이 튀어나왔다. 20일 밤 광주역 인근 발포를 둘러싸고 20일 밤과 21일 새벽에 이르는 시간 동안 신군부는 공식적인 군 수뇌부와 대책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발포 명령의 실체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행되기 이전, 즉 군의 공식 지휘계통의 ‘발포 금지, 실탄 통제’의 지시가 떨어지기 이전 실탄을 분배하고 사격을 할 수 있게 해준 그것이 어느 계통, 누구인지를 밝힘으로써 확인 가능할 것이다.

20일 광주역 인근 발포에 책임이 있는 최세창 3공수여단장도 이미 그날의 발포가 본인의 독단적인 실행 지시가 아니라 건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 행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 계통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공식적인 지휘계통의 지시·보고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점에서 ‘자위권 발동’, ‘진돗개 하나’ 등은 발포 명령의 선행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후 조치에 가깝다.

**다. 시민군 탄생과 공수부대 철수**

시민들은 무장을 서둘렀다. 계엄군의 총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총이 필요했다. 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위대 중 일부는 광주 근교의 화순, 나주, 영산포, 장성, 영광, 담양 등지로 달려갔다.

화순 탄광에서는 광부들의 도움으로 다량의 다이너마이트와 뇌관이 확보되었고, 그 외 각 지역의 지서와 예비군 무기창고에서는 카빈 소총 등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무기들은 즉시 광주 시내로 반입되어 청년들에게 분배되었다. 이들 무장 시위대는 광주 시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시민군’으로 불렸다.

시민군들은 계엄군의 정식 발포가 시작된 지 2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경부터 응사를 시작하였다. 시가전은 도청을 중심으로 전남대 의대 근방, 노동청 근방, 공원 근방, 금남로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특수 훈련을 받은 정예 공수부대와 비조직적인 시민군이 전투를 벌임에 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시민군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전투 지도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들 지도부는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을 10여 명씩 조를 나누어 편성하였다.

이들은 각각 조별로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 시내 주요 지점에 배치되었다. 무장한 시민들이 도청으로 끊임없이 압박해 들어가자 계엄군은 오후 5시경 총퇴각이 결정되었다. 시민군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계엄군은 길 양옆으로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계엄군은 도청 뒷담을 넘어 철수했으므로 철수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시민군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저녁 8시경 시민군 일부가 총을 쏘면서 도청 안으로 뛰어들었고, 드디어 시민군은 교도소를 제외한 광주시의 전 지역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

이날의 총격전으로 광주 시내의 모든 병원들은 총상 환자로 만원이었다. 버스나 소형 차량들은 주로 부상자나 시체들을 병원으로 실어 날랐고, 의약품이나 일손도 태부족이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글자 그대로 신명을 다했다.

병원 앞에는 시위 대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한 가정주부, 아주머니, 아가씨들이 헌혈을 하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어린이까지도 팔을 걷고 달려왔다. 적십자 병원 앞에는 인근 술집 아가씨들이 ‘우리도 깨끗한 피를 가졌다’고 절규하며 헌혈을 간청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전개된 새로운 사태의 하나는 항쟁이 더 이상 광주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으로 광범위하고도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이날 광주 시내에 거주하던 미국인 약 200명은 미리 송정리로 빠져나가 군용 비행기를 이용하여 서울로 피신하였으며, 송정리 공군기지에 주둔해 있던 미공군은 그곳의 모든 비행기를 군산과 오산 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5월 21일 계엄군 퇴각은 광주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군의 전술적인 작전이기도 했다. 계엄군은 이미 ‘광주지역 봉쇄 → 내부 교란 → 최종 진압’이라는 단계적 작전 개념을 수립하고 있었다.

한편, 시내의 모든 질서는 시민군에 의해 자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5. 항쟁의 확산

가. 전남 서남부 지역으로 확산

21일 오전, 시위대는 아시아자동차공장과 여러 운수회사 차고에서 대거 쏟아져 나온 차량으로 전남 도내 각 시와 군으로 내달렸다. 광주 소식을 주변의 농촌 지역에 알리고, 지원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 차량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전주·서울 방면의 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장성과 정읍 사이의 사남터널(현재 호남터널)을 철통같이 차단하고 있어 진출이 불가능했다. 차량 시위대의 활동으로 항쟁은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 시·군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차량 시위대는 남평–나주–함평–무안–목포, 또는 나주–영암–강진–장흥–해남–완도와 화순–송광–보성–벌교–고흥 등으로 진출했다. 담양–곡성 방면은 진출이 여의치 않았다. 담양–곡성 방면으로 나가는 도로가 광주교도소 옆을 지나가는데, 교도소를 지키고 있던 3공수부대원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기 때문이었다.

**나. 나주, 시위 확산의 관문**

21일 나주에 차량 시위대가 최초로 출현한 시각은 오전 10시 40분경이었다. 먼저 100여 명의 시위대가 광주 고속버스를 앞세우고 나주 금성파출소 앞을 지나갔다. 같은 시각, 나주 남평읍에도 광주의 시위대가 탄 버스 1대가 읍내를 돌아다녔다. 차량 위 청년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흥분된 어조로 광주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들은 곧 그곳에서 차에 올라탄 상당수의 농촌 청년들과 함께 목포로 향했다. 오후 1시 25분, 나주 방면으로 진출했던 시위대 일부가 나주 지역 주민들을 차량에 싣고 광주 시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21일 오후 1시, 광주 도청 앞 금남로에서 공수부대가 집단 발포를 한 후 나주에 도착한 시위대는 전남 각 지역 읍면 소재지의 경찰서와 지서의 무기고를 훑으며 돌아다녔다. 시위대의 한 갈래는 함평, 무안, 목포 방면으로 움직였고, 다른 한 갈래는 영암, 해남, 완도, 진도까지 내려갔으며 일부는 영암에서 강진, 장흥, 보성까지 진출하였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해남, 강진, 영암, 목포 등지로 나갔던 70여 대의 시위 차량들이 무기나 지원자들을 가득 싣고 광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나주로 되돌아왔다. 밤 9시경부터 나주와 광주 경계 지역에 20사단 계엄군 배치가 완료되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평소처럼 광주로 진입하려던 시위대는 갑자기 쏟아지는 계엄군의 총격을 피하기 위해 급회전하거나 가속 페달을 밟다가 차량이 전복되었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21일 밤 나주–광주 경계 지역 시위 차량을 향한 총격 후에도 22일 아침부터 광주에서 효천역 부근을 통과하던 민간인 승용차들을 향해 계엄군이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다. 화순, 탄광 TNT를 도청으로**

21일 오전 1시경, 유리창이 깨진 버스와 트럭들이 광주에서 너릿재 터널을 넘어 화순 읍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차체를 각목으로 두들기며 구호를 외치는 200여 명의 청년 학생 시위대가 화순 읍에 나타나자 주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시위대는 “전두환 퇴진”, “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화순 읍 일대를 돌아다녔다. 광주 시위대가 왔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화순 사람들은 읍내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12시경, 화순 읍은 물론 인근 농촌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2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오후 2시가 넘자 광주에서 계엄군의 발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위대가 숨 가쁘게 너릿재를 넘어왔다. 곧이어 광주에서 시위 차량 수십 대가 화순에 도착했다. 시위대는 흥분하여 광주 소식을 전하며 근처 무기고 위치를 물었고, 일부는 화약을 구해야 한다며 광업소 위치를 묻기도 했다. 또 몇 대의 차량은 보성 쪽으로 출발했다.

화순 주민들은 시위대에게 물을 떠주고 가게에서 빵과 음료수를 사서 건네며 하나가 되어갔다. 광주에서 온 시위대와 화순 읍 주민들은 읍내와 각 면의 지서 및 예비군 무기고에 들어가 총기를 획득한 뒤 광주로 실어 날랐다.

오후 3시경, 시위대는 화순 역전 파출소와 동면 지서 무기고를 부수고 총기를 꺼내 무장하였다. 또한 화순 광업소에서 확보한 화약 TNT를 트럭에 나누어 싣고 광주로 옮겨 도청 지하실에 보관하였다.

**송정리, 광주 진입의 꿈**

송정리는 행정구역이 광산군에 속했지만 생활권은 광주였다.

광주에서 송정리로 가는 도중에는 계엄군 지휘본부인 전투교육사령부가 상무대에 자리잡았고,

조금 더 광주 쪽으로 들어오면 화정동에 국군통합병원, 505 보안부대, 중앙정보부 전남지부 등

군사 및 정보 관련 주요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경계가 삼엄했다.

21일 오후 5시, 계엄군은 퇴각과 동시에 화정동 부근에서도 도로를 차단했다.

이후 화정동 지역은 계엄군과 시민군이 대치하는 접경이 되면서 숱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송정리가 격랑에 휩싸인 것은 22일부터였다.

21일 밤, 남평다리 넘어 효천 방향 도로에 계엄군 20사단이 배치되어 지나가는 시위 차량에 총격을 가해

광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히자 목포, 완도, 해남, 강진, 영암 등에서 올라와 나주를 거쳐

광주로 진입하려던 수십 대의 차량이 22일 아침 일찍부터 방향을 돌려 노안을 거쳐 송정리로 향했다.

22일 새벽부터 나주에 있던 시위 차량들이 송정리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송정리에도 공군 비행장을 본부로 계엄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21일 밤, 광주로 진입하지 못한 70여 대 차량 시위대들은 나주에서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새벽 6시경 노안 방면으로 해서 광주로 출발했다.

그들은 노안과 송정리 사이의 다리에서 레커차 한 대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차를 멈추고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송정읍 비행장 옆 도로에 20사단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탱크 5대를 앞세운 채 양쪽 논밭에 군인들을 매복시켜 놓아 70여 대의 시위대 차량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22일 송정리는 나주를 통해 들어온 시위대들이 절정을 이룬 날이었다.

비행장 앞 도로가 차단되자 시위대는 다시 나주나 영암, 무안 등지로 돌아가거나

비아를 거쳐 광주에 진입했다. 일부는 차와 무기를 버리고 농로나 소로로 광주에 들어갔다.

22일 오후, 시위대 행렬이 거의 사라지자 계엄군은 송정읍 시가지를 장악하였다.

**영암•강진, 지역민들 대거 참여**

5월 21일 점심 무렵, 영암군 신북 삼거리에는 각목을 든 시위대를 가득 실은 시외버스 1대와

스피커를 단 지프차가 도착했다. 영암 지역 주민들은 빵과 음료수를 가져다주는 등 적극 동조하였다.

21일 오후, 영암 청년 100여 명이 버스 2대에 올라타고 광주로 출발했다.

영암군 신북면 소재지에서도 시위가 시작됐다.

22일과 23일에 걸쳐 신북 지역 청년들과 고등학생들이

시종면 지서 뒷산과 도포면 덕화리 저수지 부근 길에서 총기와 실탄을 획득하여

지나가는 차량 시위대에게 나누어 주었다.

27일 광주가 진압되고 나자 영암에도 검거 선풍이 불었다.

21일부터 시위에 참여한 시종면의 청년들과 고등학생 20여 명이 모두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21일 오후 4시경, 3대의 버스에 탑승한 광주 시위대가 강진읍에 도착하여

구호를 외치며 시가지를 행진하자 수많은 강진읍 주민들이 나와 환호하였다.

22일에도 강진읍에는 계속 시위 차량이 진입하여

광주 현지 상황을 설명하며 강진 읍민의 궐기를 호소하자

수천 명의 읍민, 청년, 학생들이 자체 시위를 벌였다.

강진에서는 강진읍 교회 청년들과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대에 식사를 제공하고

교회 건물을 숙소로 사용하도록 지원하였다.

강진농고 학생들과 지역 청년들, 청년회의소 회원들까지 가세하였다.

**해남우슬재, 복평리 총격사건**

21일 오전,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 차량이 해남읍에 도착하여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며 군민의 지원을 호소하자 해남 읍민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치면서 격려했다.

‘광주에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구름처럼 읍내로 몰려들었다.

12시 30분경 해남청년회의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계엄 해제 등 5개 사항을 요구하고 시위에 동참하였다.

오후 3시경 광주에서 온 시위대와 약 3천여 명의 군중이 해남읍 성내리 소재 교육청 앞 광장에 모여 성토대회를 열고 시가행진에 들어갔다.

22일 밤 9시를 기해 해남에 주둔해 있던 31사단 93연대 2대대는 우슬재 40명, 마산면 상등리 10명의 무장 병력을 배치했다.

양쪽 모두 장교 1명과 기간병 1명, 나머지는 모두 방위병이었다.

23일 새벽 5시 30분경, 해남 우슬재를 지나가던 차량 시위대와 경계 중인 방위병 간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지프차 1대가 도로 좌측으로 처박혀 앞쪽에 타고 있던 나주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복부 관통상을 입었으며 시위대 3명이 검거되었다.

오전 10시경, 해남읍 북평리 차단 지역에서도 계엄군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화원면 쪽에서 올라오는 2대의 시위 버스가 북평리 계엄군 차단 지역에 접근하자

이곳을 지키던 10명의 방위병이 시위 차량을 겨냥해 사격을 가했다.

이때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복부 관통상을 입었으며, 차에 타고 있던 시위대 50여 명이 모두 체포되었다.

**함평, 영광, 무안**

21일 오후 1시경, 고속버스, 트럭 등 10여 대에 분승한 광주의 시위대가 함평읍에 도착하자,

함평읍 주민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22일 오전 1시경, 함평공원에서 함평읍장과 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1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광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21일 오후 2시경, 광주에서 시위대 30여 명이 3대의 버스에 탑승하고 무안읍에 도착했다.

무안 지역 주민들은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외치며 무안군 일대와 나주, 영광, 영암, 함평, 목포 등

인근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차량 시위를 이어갔다.

22일 오후에는 무안경찰서 읍내 파출소 무기고 잠금장치를 MI 소총으로 부순 후 무기를 가져갔다.

당시 지서에는 이미 무기가 근처의 군부대인 지산부대로 옮겨져 있었다.

무안 지역은 23일 오후 1시 30분경, 시위대가 총기 일부를 반납한 후

‘평온한 상태’라는 보고를 끝으로 시위대의 모습이 사라졌다.

**목포, 비폭력 민주항쟁**

21일 오후 2시 15분경, 광주로부터 빠져나온 시위대 200여 명이

각목 등으로 무장한 채 4대의 버스와 택시 1대에 분승하여 나주, 함평, 무안을 거쳐 목포에 도착하였다.

목포 시민들은 시위대를 열렬히 환영하며, 삽시간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에 운집하였다.

오후 4시부터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조달하여

‘김대중 석방’, ‘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가두 시위를 시작했다.

22일 아침 7시부터 시민들이 역 광장으로 다시 모여들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오전 11시, 재야 인사, 정당, 청년, 학생 대표들이 모여

‘목포시민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민주헌정 수립을 위한 시민 기대회’ 개최를 결정하였다.

오후 3시경, 시민투위의 세부 조직이 구성되었다.

위원장으로 기독청년 지도자 안철이 선출되었고,

명재용, 박광웅, 최형주, 김대유, 김상옥 등 엠네스티 및 재야 운동가들이 위원으로,

박상규, 양지문, 황인갑, 한봉철, 이진선 등 대학생들이 집행부로 참여하였다.

오후 8시부터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400여 개의 횃불과 150개의 피켓을 동원하여

수만 명의 인파가 시가행진을 하였다.

행진은 목포역 → 시민극장 → 중앙시장 → 항만터미널 → 선창어판장 → 목포역 광장 순으로 이루어졌다.

횃불 시위를 마친 시민들은 밤 10시 40분경 역 광장에 모여 철야 농성을 전개하였고,

이후 자체 경비대를 조직해 시내 외곽 및 시내를 순찰하였다.

24일에는 비로 인해 궐기대회가 열리지 못했으나,

목포역 대합실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광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25일 정오 12시 30분, 목포기독교연합회는 ‘비상구국기도회’를 열고

‘광주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 고백 선언문’을 채택해 낭독하였다.

26일 오전 10시, ‘제4차 민주헌정 수립을 위한 목포시민 궐기대회’가 열렸고,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별로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에 나섰으며,

오후 8시에는 다시 횃불 시위가 열렸다.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점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시민투위는 궐기대회를 강행하였다.

오전 11시, ‘제5차 민주헌정 수립을 위한 목포시민 궐기대회’가 열렸고,

‘우리 겨레와 세계 자유민에게 보내는 목포시민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시가행진 중 군 헬기가 유인물을 살포하며 자진 해산과 자수를 종용했다.

오후 3시 시민투위는 시위를 종료했지만,

오후 6시경 다시 횃불 시위가 시작되었고,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시위 종료 무렵 시민들은 하나둘씩 흩어졌고,

자정 무렵 약 2천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목포역 광장에 남아 있었다.

자정 40분,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해산을 선포했다.

일부 학생들은 “죽더라도 싸우자”고 외쳤고,

남은 학생들과 함께 30분 동안 거리 청소를 했다.

그때 사복 경찰이 목포역 주변을 포위하고 시위 주동자들을 덮쳤다.

다음 날부터 검거 선풍이 몰아쳤고, 시민투위 위원장을 비롯한 활동가들은 모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나. 봉쇄작전과 민간인 학살 (5월 21일 ~ 24일)**

**외곽 봉쇄 작전**

계엄군은 광주시내에서 퇴각과 동시에 외곽 봉쇄 작전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21일부터 24일까지 사이에 봉쇄 작전 지역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민간인 학살들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21일 오후 5시에 계엄군은 광주시내에서 철수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광주시 외곽 도로망을 완전 차단하라는 지시가 계엄사로부터 전교사에 내려갔다.

21일, 20사단은 효천역(광주-목포 간 도로), 극락교(광주-송정 간 도로),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광주-장성), 국군통합병원 입구 화정동 등에 배치됐다.

광주-화순 간 도로 봉쇄를 맡은 11공수여단 병력은

“검문을 하여 지역 주민 이외의 차량이든 사람이든 일체의 통행을 금지시키라.

전시와 마찬가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문에 불응하면 사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결과 광주 시외곽 계엄군의 봉쇄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장 희생이 큰 곳은 화순으로 나가는 학동, 지원동 길목과 담양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인 두암동 광주교도소 인근,

나주와 영암, 강진, 해남, 완도와 목포로 나가는 효천역 앞 도로 등이었다.

**효천-남평 길목의 참변**

21일 밤 9시경, 20사단 61연대 2대대가 목포로 나가는 길목인 광주시 서구 효천역 부근에 배치되어

광주-목포 간 도로를 차단하던 중 광주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총격을 가했다.

시위대 버스 2대가 전복됐고, 나머지 차량은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새벽 1시경에는 광주 쪽에서 버스 5~6대에 탑승하고 온 시위대와 다시 교전이 벌어졌다.

1995년 검찰은 “두 차례의 교전 과정에서 시위대 10여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였으며,

61연대 2대대원 2명이 총상을 입었고, 시위대로부터 총기 16정과 실탄 50여 발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22일 아침, 광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이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상자가 속출했다.

황남열(46세)이 부인과 아들, 아들의 친구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20사단 61연대 수색중대 병력 30여 명으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고

아들의 친구 박재영이 사망하고 황남열과 그의 가족 모두 부상을 입었다.

곧 이어 회사 동료들인 왕태경(27세), 해정구(39세), 장재춘(44세), 임동재(20세) 등 4명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턱이 부서진 채 왕태경은 사망하였다.

장재춘은 어깨 우측에, 해정구는 좌측 발목과 옆구리에 총상을 입었다.

**광주교도소 주변 도로 참상**

광주교도소는 18일부터 31사단 96연대 제2대대가 지키고 있다가

21일 오후 5시 30분 전남대에서 철수한 3공수여단과 교대하였다.

3공수여단은 21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이곳에 주둔하다

광주 재진입 작전 준비를 위해 20사단 62연대와 교대하였다.

광주교도소 부근 민간인 사상자는 대부분 3공수여단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3공수여단은 교도소 도착 즉시 담양, 곡성 방면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국도 입구를 차단하고

무장한 시위 차량은 물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차량과 심지어 보행자들에게까지 총격을 가했다.

담양 대덕면의 한 마을 주민 4명이 21일 오후 픽업차를 타고 광주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교도소 뒤 고속도로에서 계엄군의 집중 사격을 받고 2명이 사망, 2명이 부상당했다.

계엄군은 사망자들을 교도소 앞 고랑에 묻었다.

사망자는 마을 이장이자 새마을 지도자인 고규석(39세)과 축산업을 하던 임은택(35세),

부상자는 박만천(21세), 이승을(40세)였다.

22일, 트럭에 채소를 싣고 다니며 행상을 하던 김성수(46세)는

아내 김춘화(43세)와 막내딸 김내향(5세)을 자신의 트럭에 태우고 진도의 집으로 가기 위해

광주교도소 근처 진입로로 빠져나가려다가 호남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계엄군의 정지 신호를 받았다.

계엄군이 통과를 막자 광주로 차량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 뒤쪽에서 총탄이 쏟아졌다.

막내딸은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부인은 뇌 수술을 세 차례나 받아야 했다.

**화정동 민간인 학살 사건**

5월 22일 오후 3시경, 20사단 62연대 2대대는 오후 5시까지 광주 통합병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62연대 2대대는 전차 3대를 선두에 앞세우고 통합병원 쪽으로 전진하던 중

이를 저지하려는 무장 시위대와 민가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다.

그 와중에 인근 화정동, 쌍촌동, 내방동에 거주하는

이매실(여, 68세), 김영선(남, 20세), 양회남(남, 30세), 임정식(남, 18세),

조규영(남, 38세), 함광수(남, 17세), 김재평(남, 29세), 손광식(남, 20세, 방위병)과

계엄군 1명이 총상으로 사망하였다.

오후 5시 50분경, 계엄군이 광주 통합병원을 장악하였다.

**주남마을 앞 승합차 승객 떼죽음**

21일 밤, 전남도청에서 조선대를 거쳐 철수하여 주남마을 뒷산에 진지를 차린

7공수여단 35대대는 22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너릿재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그 후부터 광주와 화순을 오가는 차량은 너릿재 위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좁은 도로로 지나가야 했다.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와 화순을 오가는 차량들은

1공수여단이 주둔하고 있던 주남마을 부근에서 공수부대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23일, 장의용품을 구하기 위해 화순으로 가던 승합차가

주남마을 앞길에서 11공수여단 공수부대원에 의해 총격을 당해

18명의 승객 중 17명이 학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검찰 수사 결과 (1995)**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주남마을 부근에서 발생한 버스 총격 사망 사건은 다음과 같다.

23일 오전 10시경,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가 매복하고 있던

주남마을 부엉산 아래 광주–화순 간 국도를 광주 방면에서 화순 방향으로 진행하던

마이크로버스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자,

부근을 순찰 중이던 5지역대 5중대원들이 집중 사격을 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박현숙(여, 18세), 고영자(여, 22세), 황호걸(남, 20세),

백대환(남, 19세), 김윤수(남, 27세), 김춘례(여, 18세) 등 10여 명이 사망하였다.

여단 본부로 후송된 3명 중 홍금숙(여, 17세)은 헬기로 후송되었으나,

성명 불상의 남자 중상자 2명은 공수부대원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검찰은 23일에 한 건만 총격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3일 하루 동안,

지원동과 너릿재 사이 도로에서는 적어도 2회 이상의 차량 총격으로 인한 살상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마이크로버스 탑승자 18명 가운데 유일하게 홍금숙 한 명만 살아남은,

소위 ‘주남마을 앞 도로 마이크로버스’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11명이 탑승하여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군 순찰대 103번 봉고차 총격 사건’이다.

**10. 헬기 사격과 성폭력**

**가. 헬기 사격**

5·18 민주화운동을 논할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집단 발포도 문제이지만 헬기에 의한 기총 소사는 이른바 ‘자위권’의 범주를 뛰어넘는

폭력적인 진압 작전의 표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989년 2월 22일 광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비오 신부는 헬기 사격을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후에도 그의 저서 『사제의 증언』(1994), 1995년 검찰 조사에서 동일한 내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의 목격자는 조비오 신부만이 아니다.

피터슨 목사를 비롯한 다수의 목격자가 1980년 5월 21일의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

게다가 2016년, 1980년 당시 광주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금남로의 전일빌딩 외벽과 10층 내부에 다수의 탄흔이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총 세 차례의 ‘법안전 검증’을 실시하고,

2017년 1월 12일 최종 ‘법안전 검증서’를 제출하였다.

이 감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실은 탄흔이 수평에 가까운 상향 탄도에서

하향 탄도에 의한 탄흔이 혼재돼 있다는 점이었다.

즉, 당시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없던 까닭에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을 제출하였다.

전일빌딩에 남아있는 탄흔에 대해서는 이후

2017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2024년 6월에 조사를 마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법부 차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광주천(500MD 기종)과 27일 전일빌딩(UH-1H 기종)을 향한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80년 5월 당시 참여 군 당사자들은 헬기의 무장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실제 헬기는 무장 상태로 출동하였다.

신군부의 일원인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이

“전차, 헬기”를 사용해 “폭도”를 진압하라고 구두 지시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육군본부는 지상 병력의 작전을 공중 화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헬기 사격을 포함하는

항공 작전에 대한 지침(「HEL기 작전계획 실시하라」)을 실제로 내렸다.

이것들이 헬기 사격의 실체적 진실이다.

이런 연유로 당시 「20사단 충정 작전상보」(편전교사 군수보급문건철)에

헬기용 탄약(20mm 탄약 1,500발)이 보급되었다 적혔고,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 1980)과 같은

결과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헬기 기동 중 오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실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도 헬기 사격에 의한 명확한 사상자가 확인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던 일로 돼버리는 것이 아니다.

헬기 사격의 흔적은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헬기 사격을 포함한 군사작전,

즉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작전은 ‘자위권’의 범주를 넘어서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을 한 군사작전이었다.

1980년 5월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거칠게 타오르던 5·18 민주화운동의 불꽃은

27일 새벽 계엄군의 ‘소탕작전’과 함께 사그러들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씨마저 짓밟혀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 불씨는 혹독한 시절에도 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면서

그날 이후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길로 남아 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었으며, 긍지의 역사였다.

광주시민들의 자랑과 긍지는 단순한 향토애나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쟁 기간을 가장 뜨겁게 살았던 시민들의 절실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권력의 탄압이나 각종 왜곡과 선전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광주시민들이 체험한 ‘광주의 진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수부대의 야만적인 폭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싸웠다는 점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항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광주시민들은 한두 명의 영웅적인 항쟁이 아닌,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저항했으며, 결국은 승리하였다.

**둘째**, 항쟁의 전 기간 동안 광주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위기를 가장 인간다운 삶의 협동 정신으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고립된 상황에서 광주시민들은 서로 나누고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았다.

**셋째**, 계엄군이 퇴각하고 시민군이 시내를 장악한 이후부터

다시 계엄군이 진주할 때까지 6일 동안 광주의 시민들은,

특히 이 지역의 민중들은 도덕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공식적인 치안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도

거의 완벽한 치안 질서를 유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총기가 있었음에도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이나 금은방 등에서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은 성숙한 민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견지하였다.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민 봉기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공격을 받은 곳은

그들을 억압하는 국가 권력이나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방송국 같은 보도 매체들이었다.

그러나 시민군과 계엄군의 싸움은 정당성과 도덕성이 아니라

물리력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었다.

외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식 개인 화기만으로 무장한 시민군이

조직화된 계엄군을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시민군은 패배하였다.

그러나 계엄군도 광주시민들 마음속의 자랑스러움과 긍지는 지울 수 없었다.

1980년 5월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지방에서 일어난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군부의 진압작전으로 일단은 좌절되었지만, 실패한 역사로 기억될 수는 없다.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있는 과거로서

오늘의 우리에게 그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반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져왔다.

1980년의 광주와 그 해 봄의 민주화운동은 이후의 5월마다

전국에서 억압적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 열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5·18은 일반 시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운동은 전대미문의 시민 무장 봉기였으며,

전두환 신군부는 그 희생 위에 권좌를 차지했으나 결국 역사의 단죄를 받았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상은 조금씩 밝혀졌고,

진실은 끝내 국민과 정의의 힘에 의해 드러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승리의 항쟁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 정신은 과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계승되어야 한다.

공동체 실현을 통해 5·18 정신은 더욱 찬란한 역사 속 빛으로 승화될 것이다.